

수험생 제자 한명 한명 끌어안고 '따뜻한 응원'

광주·전남 수능 표정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광주·전남 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광주·전남의 고사장 인근에서는 수험생뿐 아니라 교사들과 후배들,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따뜻한 응원을 펼쳤다. 올해도 시끌벅적한 집단응원 문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알뜰한 새벽 공기를 뚫고 찾아와 교문을 지키는 이들 모두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의 선전을 바랐다.

◇교사도 제자도 한 마음= 제26지구 5시험장인 서구 화정동 광덕고, 제26지구 8시험장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고, 제26지구 26시험장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 등 고사장 입구는 오전 6시 20분께부터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학교 앞의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줄을 지어 한 때 혼잡했고, 인실 시간을 놓칠까 수백m 밖에서부터 차에서 내려 잔걸음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새벽부터 고사장 교문 앞에서 제자들을 기다렸던 교사들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으며 "긴장하지 마라", "육십부리지 말고 잘 치르자"며 기운을 북돋아 줬다.

김석형(49) 설월여고 교사는 제자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백점 만점이야"라고 너스레를 떨며 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걱정됐다"며 "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실전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석산고 1·2학년생 6명은 광덕고 입구에서 '수고했어요', '걱정마'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배 수험생에게 "석산 화이팅"을 연호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석산고 전교부회장인 신재현(17)군은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왔다. 선배들 긴장

후배들 피켓 들고 화이팅 외쳐
자식 걱정 학부모들 눈시울도
장애인 고사장서 후배들 응원
시험장 착각했다 순찰차 수송

하지 말고 시험 잘 보라고 달달한 과자도 잔뜩 사왔다"며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간절한 부모 마음은 여전= 올해도 수험생 자녀를 고사장에 보내는 부모들은 애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교문까지 자녀를 바라다 주며 "차에서 도시락은 챙기고 내렸다", "긴장하지 말고 잘 하자" 등 격려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고사장을 향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는 마음은 여전히 애달팠다.

최숙희(여·72)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손주 임수혁(19)군을 고사장인 광덕고에 바래다 주고, 손주가 교문 너머로 사라질때까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며 손주의 건투를 기원했다.

아들인 김모(19)군과 함께 살레시오고 고사장을 찾은 김운덕(57)씨는 "아내와 함께 휴가를 내고 고사장을 찾았다"며 "이제 아들을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사장에 혼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것처럼 마음이 아리다"고 말끝을 흐렸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듯, 활짝 웃으며 오히려 부모를 격려하기도 했다. 차에서 내리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끌어안으며 "잘 치르고 오겠다"고 다짐하거나 교문까지 따라 온 어머니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학생들도 있었다.

막내 동생 이화진(19)양을 바래다 주러 온 언니 현경(25)씨는 고사실에 들어간 이양에게서 "입실할 때 받은 선물 꾸러미에서 솜뽕잠삼살 쿠키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덕고 입구에서 서석고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들을 위한 응원을 펼치고 있다.

당점됐다. 수능 끝나고 먹으러 가지"는 전화를 받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장애인 수험생도 '수능 대박' = 장애인 수험생 고사장인 제26지구 1시험장 북구 일곡동 선우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학교를 찾은 세광학교 1학년 생 신현성(17)군은 멀리서 같은 학교 선배가 보이

면 반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피로회복 음료를 꺼내 건넸다. 신군은 "나도 저시력 장애가 있어 공부하면서 느끼는 한계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년에 상관없이 서로 의지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누구보다 후배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 아침 일찍 나왔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수능을 볼 텐데 먼저 그 길을 걸어난 선배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저시력 장애가 있는 딸을 고사장에 들여보낸 이모(여·52)씨는 한참을 학교 밖에 서 있었다. 이씨 딸 임양은 완벽한 수능을 위해 예비소집일 세광학교 선생님과 교문에서부터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연습까지 거쳤다고 한다.

이씨는 딸이 화장실을 잘 찾아가지 못할까 걱정하면서도 "6살 때 저시력 장애를 진단받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덕분에 아이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며 "아침에 부담이 될까 잘 보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떨지않고 스스로 잘 해내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명의 수험생도 놓치지 않게= 올해도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지각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을 돕기 위한 '수송 작전'이 펼쳐졌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 9명, 전남 5명의 수험생에게 특별 수송, 수험표 전달 등의 도움을 줬다.

오전 7시 50분께 고사장 위치를 착각해 남구 진월동 동성고가 아닌 대성여고로 간 수험생은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의 도움으로 순찰차를 타고 3분만에 제 고사장을 찾았다.

택시를 타고 중앙여고로 가던 한 수험생은 입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싸이카(경찰 이륜차)로 에스코트를 받으며 제 시간에 고사장으로 갈 수 있었다.

광양에서는 한 수험생이 오전 8시 1분께 고사장으로부터 차로 20분 거리의 집에 신분증을 놓고 경찰이 출동, 7분만에 수험생에게 신분증을 전달했다. 여수에서도 차량 정체로 입실시간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인 수험생이 경찰의 차량 에스코트를 받아 입실 마감 시간 5분을 남기고 가까스로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 섬 지역 수험생들 물으로 '원정 수능'

신안·진도·여수·완도 등 129명

전남 섬 지역 고3 수험생들이 올해도 익숙한 집을 떠나 인근 물의 낯선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을 치렀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안(도초고, 하의고), 진도(조도고), 여수(여남고), 완도(노화고·완도금일고) 등 총 6개 고등학교 129명의 수험생이 '원정 수능'을 봤다.

이들은 예비소집일인 전날 배를 타고 섬을 떠나서 고사장이 있는 목포, 여수, 완도의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물며 수능을 준비했다. 이들은 부모님이 싸주는 따뜻한 도시락 대신 식당에서 파는 김밥 등을 챙겨 고사장으로 향했다.

섬지역 수험생이 가장 많은(43명) 도초고 고3수험생들도 13일 신안 화도 선착장을 통해 목포 북항으로 떠났다. 도초고 후배들은 수험생 선배들을 위

해 선착장으로 떠나는 길목에 서서 미리 준비한 풍선과 초콜릿 등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완도 노화고 학생 42명도 수능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완도 노화도 동천항에서 완도군으로 향했다. 이들은 수능을 마친 뒤 밤 9시께 완도 화흥포항에서 배를 타고 다시 노화도로 돌아간다.

앞서 완도 노화고에서도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수능 응원 행사가 열렸다.

1·2학년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과 간식 꾸러미, 완도 노화고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담은 수능 만점인 500점을 받으라는 의미로 500원을 붙인 막대사탕 등이 전달됐다.

이아연 완도 노화고 교무부장은 "학생들이 도서 지역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김다인 기자 kdi@

음주사고 낸 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해 입건

전남경찰청 소속인 합평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됐다. 이 경찰관은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경찰청은 합평경찰서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무안군 무안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A경위는 주차대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처리를 하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당황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

'선거법 위반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박 시장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는 여전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개제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이다. A씨는 2021년 11월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

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에게 전 목포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김 전 시장 배우자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 측은 B씨 측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 등을 받았다. A씨 측은 이를 녹화해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의 수백 차례 전화통화 내역과 장거리 동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